

의료복지시설 연구동향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를 중심으로-

Research Trends of Healthcare and Welfare Facilities

-An Assessment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Journal-

김덕수 Kim, Duk-Su*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and evaluates the specialized characteristics of the journal of Korea healthcare architecture. Total 308 papers from 1995(Vol.1) to 2010(Vol.16) were analyzed by following seven criteria: (1) research focus by analyzing the key words of each paper; (2) research method(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3) research nature(practical/prescriptive vs. theoretical/normative); (4) research target(healthcare, welfare, and others); (5) researcher characteristics(position, major, and numbers of author); (6) supported research(in-university, out-of-university, and out-of-pocket funds); and (7) international study. The research findings include followings. First, research focus lies in the function of healthcare and welfare facilities. Second, qualitative method is the dominant form of research. Third, practical/prescriptive research continuously increases. Fourth, research target is mainly a healthcare facility, while the research of welfare facility is increasing. Fifth, the considerable numbers of first author are graduate students. Sixth, out-of-university research funds increase. Finally, international studies related to Japan are mostly published.

키워드 의료복지시설, 연구동향

Keywords healthcare and welfare facilities, research trend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를 조직화하고 연구자 및 실무자에 보급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계발하는 방법은 전문학술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그 성과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건축과 같은 프로페셔널리즘의 근간이 된다.

우리나라 건축분야에서 최초로 발간된 잡지는 1922년 6월 28일 창간하여 1945년 광복까지 총 24집이 발행된 「조선과 건축」이었다. 최초의 한글 건축저널은 1940년 4월 25일 박길룡 건축사무소에서 발간한 「건축조선」이었다. 현재 대한건축학회의 전신인 조선기술단은 1945년 8월 발족한 이후 1945년 9월에 다시 조선건축기술단으로 개명하여 기관지인 「조선건축」을 1947년 3월 20일부터 계간으로 창간하였다. 이후 1954년 3월 대한건축학회로 새로이 발족하면서 1955년 6월부터 학회지인 「건축」이 발행되기 시작했다(박민철, 1990: 25-29).

본격적인 건축연구는 1954년에 설립된 대한건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인 「건축」에서보다는 1985년 9월부터 발행된 대한건축학회논문집을 모태로 하여 발전해왔다. 현재 건축학과 관련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의 분야를 학술진흥재단의 분류체계에 의해 대별해 보면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에 의해 공학, 예술체육, 자연, 사회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2월 현재 건축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전문학술지로는: (1) 공학분야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외에 「Architectural Research」,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건축역사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교육시설」,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2) 자연분야에는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 사회분야에는 「주거환경」; 그리고 (4) 예술체육분야로는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디자인학연구」, 「기초조형학연구」 등이 있다. 또한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는 공학분야의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과 예술체육분야의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과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등이 있다 (표 1).

* 국립한밭대학교 건축학전공 조교수, 건축학박사

[표 1] 건축관련 전문학술지와 의료복지시설 관련 논문 게재 현황

분류	영역	논문집	논문집 창간년도	학회	학회 설립연도	등재후보지 지정년도	등재지 지정연도	의료복지 논문 수(%)
등재지	공학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995.12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1994	2003	2008	308(50.24%)
	공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5.09	대한건축학회	1954	1999	2001	171(27.90%)
	공학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999.10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0	2005	2008	3(0.49%)
	공학	Architectural Research	1999.12	대한건축학회	1954	2003	2007	1(0.16%)
	공학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90.06	한국주거학회	1989	2000	2004	11(1.79%)
	공학	건축역사연구	1992.06	한국건축역사학회	1991	2001	2004	-
	공학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99.02	한국농촌건축학회	1998	2004	2009	26(4.24%)
	공학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00.0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0	2003	2006	4(0.65%)
	공학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2001.10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1	2006	2009	4(0.65%)
	자연	교육시설	1994.06	한국교육시설학회	1993	2003	2010	-
	사회	주거환경	2003.11	한국주거환경학회	2003	2007	2010	4(0.65%)
	예술체육	디자인학연구	1980.07	한국디자인학회	1978	1999	2004	-
	예술체육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992.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992	1999	2002	75(12.23%)
예술체육	기초조형학연구	2000.02	한국기초조형학회	1997	2003	2006	-	
등재 후보지	공학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2001.11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2001	2007	-	5(0.82%)
	예술체육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1998.11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1997	2008	-	-
	예술체육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06.08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04	2009	-	1(0.16%)
총계								61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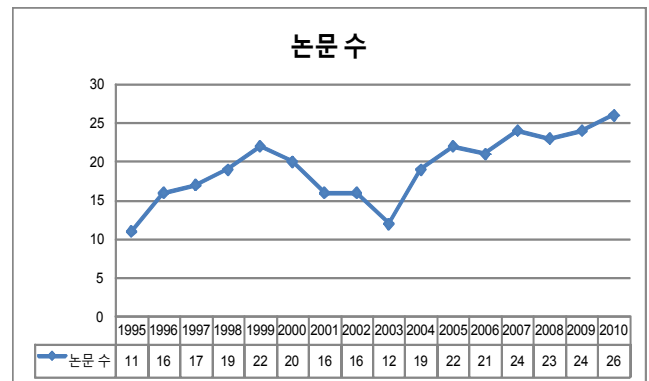
* 1997년 10월 박물관건축연구회로 결성되어 1999년 11월 한국박물관건축학회 창립, 2005년 6월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로 개명.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는 의료복지시설 연구에 집중하는 한국의 대표적 전문학술지이다. 한국의료복지시설 학회의 전신은 1985년에 창립된 한국병원건축연구회이다. 1990년대 초반에 태동된 건축연구의 전문화 움직임에 기인하여 1994년에 한국병원건축학회로 그리고 1998년에는 현재의 학회명으로 개명하였다. 학회지는 1995년에 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2011년 2월 현재 총 17권 1호 통권 42호가 발간되었다. 2003년에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5년 후인 2008년에는 등재지가 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건축 관련 전문학술지 중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에 나타난 전문적 특성의 평가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동향 분석연구의 경향은 분야별 연구동향의 포괄적 분석보다는 세분화된 주제별 경향분석이 많이 발견된다. 이유로는 학문의 연구 분야가 세분화되기도 하고 복합적 연구에 의한 분류상의 모호함, 그리고 논문 자료의 양적 증가에 의해 세분화된 영역으로 연구를 한정하여 진행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의 이해 하에 진행된 본 연구는 의료복지시설 분야의 연구가 어떠한 변화와 발전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서술적으로 분석하는 단일 사례연구가 된다. 분석의 단위는 1995년 창간호부터 2010년 11호까지 발간된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이다. 1995년에는 1권이 그리고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간 2권이 발행되었다. 2005년과 2006

년에는 연간 3권이 발행되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기간지의 형태로 연간 4권이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6년 동안 발행된 41권의 학회지에 수록된 308편의 논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그림 1).



[그림 1] 연도별 논문 수 현황

2. 연구동향분석을 위한 분류의 틀

2.1 기존 연구동향 분석논문의 분류방식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들은 각 분야별 전문학회지를 분석의 단위로 하는 단수 사례연구나 다수의 학회지와 학위논문 등을 주제별로 분석한 복수 사례연구로 대별된다.

먼저 전문학회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는 연구동향을 크게 3개로 대별한다:

(1) 연구영역에 대한 추세 분석; (2) 논문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추세 분석; 그리고 (3) 분석방법론에 관한 추세 분석(성현곤 외 2인, 2009: 99). 도시 행정학의 연구경향분석은 연구경향과 시대별 변화, 연구비 지원, 연구방법(서술적·통계적 방법), 연구초점(이론·규범적 vs 실제·치방적), 연구자 분석(논문 편당 연구자 수, 연구자 소속)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윤의영, 2008: 73-74). 또한 한국도시 행정학의 교육·연구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을 준용하였다: (1) 연도별 논문편수 및 저자 수; (2) 분야별 연구경향; (3) 연구목적(기술적, 설명적, 치방적 연구); (4) 연구 분석단위(자료수집의 대상을 결정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일반화하고자 하는 대상); (5) 자료의 종류(정성적 자료, 정량적 자료) 및 자료 분석 기법(통계, 사례분석 등)(김태영, 2009: 421-432).

특히 건축학과 유관된 분야에서의 경향분석연구는 연구자의 독특한 관점에 의해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실내디자인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는 디자인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의 특성을 연구의 대상 공간과 연구를 위한 정보 수집단계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다(이민아, 2003: 54-61). 실내디자인의 연구경향에 대한 다른 연구는 연구의 주제,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다(오혜경, 2000: 31). 실내디자인 분야의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논문은 분류의 기준으로 수여년도와 배출학교, 연구분야(이론, 디자인), 연구대상(공간, 가구 등), 공간영역(공공, 관람 등)을 사용하였다(정유나, 2000: 58-59). 주거사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는 한국주거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주제와 내용별로 분류하였다(곽동엽, 2005: 292).

다수의 학술지와 학위논문 등을 분석의 단위로 하여 진행된 복수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90년 이후를 시간적 범위로 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유형적 범위로 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조사방법(설문조사, 문헌조사 등), 조사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조사대상자(거주노인, 직원 등), 조사내용(현황/실태, 계획/공간디자인 등), 그리고 대상지역(국내, 국외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었다(변혜령 외 3인, 2008: 99-102).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연도, 출처, 대상노인(의존노인, 반의존 노인 등), 연구방법, 연구내용(현황 및 생활실태, 물리적 환경 분석 등), 그리고 연구대상 환경(일반주거, 요양시설 등)을 분석의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었다(이연숙 외 4인, 2007: 78).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은 연구방법 경향, 연구내용 경향, 그리고 시대적 연구 경향으로 대별하여 진행하였다(류현주, 양세화, 2010: 53-59). 노인시설 색채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는 대상(의존노인, 반의존노인 등), 연구방법(설문조사, 실험연구 등), 노인환경(일반주거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그리고 연구내용(현황 및 생활실태, 물리적 환

경분석 등)의 분석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류숙희, 이상호, 2008: 150). 미국의 노인주거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은 4개의 학회지에 발표된 노인주거관련 논문을 내용별 분류(노인전용주택 및 시설, 일반주택 노인주택 등)와 시대별 분류의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조계순 외 3인, 1995: 15-17).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계획 디자인의 연구경향 분석의 기준은 대상(의존노인, 반의존노인), 연구방법(설문조사, 실험연구), 노인환경(일반주거, 노인시설 등), 그리고 연구내용(현황 및 생활실태, 물리적 환경분석 등)으로 하였다(이정화 외 4인, 2006: 245). 노인주거와 관련된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는 그 기준으로 연구논문의 현황(석사논문, 박사논문 등), 내용(주제별 분류, 시대별 분류)을 사용하였다(정무웅, 정기남, 1996: 54-57).

학회지분석에 의한 경관분야의 연구동향 파악은 각 학회지에 나타난 경관연구를 연대별 및 학회별 논문편수로 구분한 뒤, 연구대상지와 연구대상(인공환경, 자연환경, 기타)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배현미, 2007: 179-190). 유니버설 디자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은 출처, 연구 분야(공간, 제품디자인 등), 연구 내용(평가, 지침 등), 그리고 연구 대상(장애인, 노인 등)을 분석기준으로 사용하였다(이용민, 권오정, 2009: 241). 감성적 공간연구의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은 연구대상(사용자, 디자이너이론 등), 연구목적(디자인방법 분석, 디자인요소 등), 연구수법(사례조사, 관찰조사 등), 그리고 분석방법(정성분석, 정량분석) 등의 기준으로 진행되었다(정아영, 오영근, 2008: 161). 한국건축계획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연구의 주제와 연구 대상공간의 시계열적 변화 동향을 분석하였다(류호섭, 최병관, 2005: 37). 환경심리행태의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은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전공 및 분야 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환경심리행태연구의 비율, 연구대상 공간(주거, 상업 등), 연구의 세부주제(환경심리 기초, 환경심리 일반 등)를 분석하였다(최상헌, 2008: 153-155).

병원건축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는 연대별 경향과 유형별 경향(외래진료부, 병동부 등)으로 대별하여 분류한다(유영민, 2010: 42-47).

2.2 연구동향 분석 기준의 설정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창간호부터 2010년 11월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총 308개의 논문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연구경향에 대한 연구문헌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1) 연구 경향; (2) 연구 방법; (3) 연구 성격; (4) 연구 대상; (5) 연구자 특성(연구자 신분, 전공, 연구자 수); (6) 연구비 수혜; 그리고 (7) 국제 연구의 여부.

첫째, 건축전문학술지의 논문은 해당 분야의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확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연구의 경향분류 기준은 의료시설 디자인에 관련되는 지식의 복잡성을 분석한 연

구의 결과를 단초로 하여 설정한다. 의료시설 디자인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복잡성은 기능의 복잡성, (의료)기술의 복잡성, 과학적 지식의 복잡성, 미학적 복잡성, 그리고 이해그룹의 복잡성에 의해 유래된다(김덕수, 2005: 16-19). 본 연구는 이러한 지식의 복잡성 분류체계 중 최근의 흐름에 맞게 과학적 지식의 복잡성을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증거 기반 디자인(evidence-based design)의 복잡성으로 수정하였다(박진규, 2011: 41-50). 또한 외부적 요인인 이해그룹의 복잡성을 정책적/제도적 변화에 의한 복잡성으로 대체하고, 병원건축을 중심으로 관리/운영의 복잡성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황에 주목하여 시설 운영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관리/운영의 복잡성 항목을 추가하였다. 총 1,265개의 키워드를 분석의 틀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였다(표 2). 분류의 기준은 논문의 제목과 키워드를 참고하였다.

[표 2] 연구경향 분석의 틀

연구경향 분류항목	키워드 예시
기능	공간배치, 공간프로그램, 간호동선, 병동부 등
기술	급배기구, 린 건설관리, 통풍계획, 공조 등
증거	심리치유이론, 환경지원성, 이용행태, 길 찾기 등
정책	개호보험제도, 노인수발보장제도, 사회복지 등
관리/운영	유지관리, 시설관리, 운영방식, 병원정보화 등

둘째, 연구방법의 분류는 다양할 수 있으나 크게 연구의 객관성확보와 연구결과의 일반성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현상이나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로 대별하였다: (1) 양적 연구는 (유사)실험연구(pseudo/experimental research), 시뮬레이션(simulation), 설문조사(survey)를 포함; (2) 질적 연구는 도면 등을 분석하는 사례조사(case study), 현장조사(field study),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 그리고 디자인 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 포함(표 3). 연구방법 분류는 논문에 기재된 연구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여러 방법들이 언급되어 있을 경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방법을 대표 연구방법으로 설정하였다.

[표 3] 연구방법 분류

연구방법	연구방법분류
양적 연구	(유사)실험연구, 시뮬레이션, 설문조사
질적 연구	사례조사, 현장조사, 문헌조사, 실행연구

셋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의 연구 성격은 그 초점에 의해 이론적 및 규범적 연구와 실제적 및 처방적 연구로 대별하였다. 즉, 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실태를 서술하는 이론적 및 규범적 연구와 경험적 자료를 산출하여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 처방을 내리는 실제적 및 처방적 연

구로 분류하였다.

넷째, 연구의 대상은 크게 의료시설, 복지시설, 그리고 기타의 항목으로 분류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시설은 시설의 기능적 유형에 따라 병원일반, 재활병원, 여성병원, 아동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으로 구성된다. 복지 시설은 노인 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 편의시설), 아동 복지시설(보육시설), 그리고 사회 복지시설(사회복지관)로 대별하였다. 기타 항목은 호스피스나 보건소, 건강센터와 같이 의료나 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과 정책 연구와 같은 비시설적 연구를 포함한다.

다섯째, 연구자의 특성은 연구자의 신분, 소속, 그리고 수의 3가지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복지시설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의 수와 소속에 대한 추세분석을 하였다. 연구자의 수는 단독저자, 2인 저자, 3인 이상의 공동저자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구성원의 확산 및 발전정도와 다학제적 연구의 경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저자의 전공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다학제적 연구의 확산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의 소속에 대한 분석은 논문 게재 당시의 소속을 기준으로 하여 전임교수, 실무자(건축가 등), 연구기관 연구원, 시간강사,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신분을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여섯째, 연구의 지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을 교내연구비, 교외연구비, 그리고 자비연구비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국제적 범위 확장을 알아보기 위해 국제연구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일본, 미국, 독일, 중국, 그리고 복수국가 대상을 분류의 기준으로 하였다.

3.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

3.1 연구경향

총 1,265개의 키워드를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기능에 관한 연구가 전체 논문의 60.63%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시계열적 변화를 보더라도 2003년의 최저 약 48%, 2004년에는 최고 약 71%에 이르러 가장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증거와 정책에 관계된 논문은 각각 전체의 12.41%를 차지하고 있다. 미학과 관련된 연구는 전체의 2.21%로 가장 적게 나타난다(표 4).

[표 4] 연구경향

연구경향	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합계
기능	33 (67.35)	246 (60.00)	199 (62.97)	289 (58.98)	767 (60.63)
증거	4 (8.16)	46 (11.22)	37 (11.71)	70 (14.29)	157 (12.41)
정책	2 (4.08)	61 (14.88)	29 (9.18)	65 (13.27)	157 (12.41)
기술	4 (8.16)	9 (2.20)	16 (5.06)	36 (7.35)	65 (5.14)
관리/운영	6 (12.24)	25 (6.10)	14 (4.43)	3 (0.61)	48 (3.79)
기타	0 (0.00)	16 (3.90)	13 (4.11)	14 (2.86)	43 (3.40)
미학	0 (0.00)	7 (1.71)	8 (2.53)	13 (2.65)	28 (2.21)
총계	49 (100%)	410 (100%)	316 (100%)	490 (100%)	1,265 (100%)

3.2 연구방법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방법은 현장조사(33.12%), 사례연구(30.84%), 그리고 문헌조사(22.08%)의 순으로 나타난다(표 5).

[표 5] 연구방법

연구방법	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합계
현장조사	9 (81.82)	34 (36.17)	34 (40.00)	25 (21.19)	102 (33.12)
사례연구	1 (9.09)	30 (31.91)	24 (28.24)	40 (33.90)	95 (30.84)
문헌조사	1 (9.09)	21 (22.34)	15 (17.65)	31 (26.27)	68 (22.08)
설문조사	0 (0.00)	6 (6.38)	6 (7.06)	16 (13.56)	28 (9.09)
(유사)실험/ 시뮬레이션	0 (0.00)	2 (2.13)	3 (3.53)	3 (2.54)	8 (2.60)
실행연구	0 (0.00)	1 (1.06)	3 (3.53)	3 (2.54)	7 (2.27)
총계	11 (100%)	94 (100%)	85 (100%)	118 (100%)	308 (1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연구방법은 총 308개의 논문 중에서 102개의 논문이 시행한 현장조사로 나타났다. 현장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머물며 관찰이나 인터뷰 등의 수단에 의해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는 현장조사 기법에 의한 연구는 창간호인 1995년 논문집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그 활용 빈도수는 감소하고 있다(2009년에는 전체 논문 24편 중 6편을 차지하여 25%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26편 중 1편을 차지하여 약 4%로 사용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사례연구의 사용비율은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건축 도서의 분석이나 정책보고서 등을 분석하는 문헌조사는 최근 5년 간 사용 빈도가 증가하

고 있다(1995년 창간호에 게재된 11편 논문 중 1편인 9.09%에서 2010년에는 전체 논문 26편 중 12편인 46.15%로 증가). 양적인 연구방법 중 설문조사는 최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유사)실험/시뮬레이션 계열의 연구는 그 실행 빈도가 높지 않다.

3.3 연구성격

연구의 성격은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이론적 및 규범적 연구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제안이나 현황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실제적 및 처방적 연구보다 많이 발견된다. 이론/규범적 연구의 속성을 갖는 연구는 총 173편으로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나 시계열적 변화경향을 보면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실제/처방적 속성의 논문은 135편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그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표 6).

[표 6] 연구성격

연구성격	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합계
이론/규범	7 (63.64)	60 (63.83)	46 (54.12)	60 (50.85)	173 (56.17)
실제/처방	4 (36.36)	34 (36.17)	39 (45.88)	58 (49.15%)	135 (43.83)
총계	11 (100%)	94 (100%)	85 (100%)	118 (100%)	308 (100%)

3.4 연구대상

의료시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158편으로 전체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호스피스와 건강센터 등의 시설과 정책이나 제도개선과 같은 비시설적 대상의 연구를 포함하는 기타 항목에 대한 연구는 53편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 연구경향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면 의료시설에 대한 연구는 감소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연구대상

연구대상	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합계
의료시설	9 (81.82)	61 (64.89)	46 (54.12)	42 (35.59)	158 (51.30)
복지시설	0 (0.00)	24 (25.53)	25 (29.41)	48 (40.68)	97 (31.49)
기타	2 (18.18)	9 (9.57)	14 (16.47)	28 (23.73)	53 (17.21)
총계	11 (100%)	94 (100%)	85 (100%)	118 (100%)	308 (10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308편의 논문 중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병원 일반에 대한 연구논문이 총 137편(44.48%)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어 있다. 복지시설에 대한 연구는

문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연구가 40편(12.99%)으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편의 시설과 관련된 논문이 24편(7.79%) 발견된다(표 8).

[표 8] 의료복지시설 관련 논문 연구대상의 시기별 현황

	분야	시설 유형	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합계
의료시설	병원	병원일반	9	53	37	38	137
		여성병원	0	3	5	1	9
		아동병원	0	0	2	2	4
		한방병원	0	3	1	0	4
		재활병원	0	0	1	1	2
		정신병원	0	2	0	0	2
복지	노인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0	15	10	15	40
		노인주거복지시설	0	4	1	10	15
		노인재가복지시설	0	2	3	5	10
		노인여가복지시설	0	1	2	3	6
	장애인복지	장애인편의시설	0	1	8	15	24
	아동복지	보육시설	0	0	1	0	1
	사회복지	사회복지관	0	1	0	0	1
기타	기타시설 및 비시설	보건소	2	2	1	2	7
		호스피스	0	1	2	1	4
		건강센터	0	1	0	1	2
		비시설	0	5	11	24	40
기간별 논문의 편수			11	94	85	118	308

3.5 연구자 특성(신분, 전공, 저자 수)

제 1 저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자의 신분은 대학원생의 높은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전임교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원생 제 1 저자의 비율은 2001년 81.25%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0년에는 42.31%로 감소하였고, 전임교원은 2001년 최소치인 6.25%에서 2010년에는 53.85%로 증가하였다. 건축 실무자에 의해 발표된 논문의 수는 1997년 총 17편의 게재논문 중 4편으로 전체의 23.53%를 차지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최근 5년간에는 1편만이 발표되었다(표 9).

[표 9] 연구자 신분

연구자	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합계
대학원생	5 (45.55)	56 (59.57)	44 (51.76)	51 (43.22)	156 (50.65)
전임교원	6 (54.55)	28 (29.79)	30 (35.29)	56 (47.46)	120 (38.96)
실무자	0 (0.00)	8 (8.51)	7 (8.24)	1 (0.85)	16 (5.19)
연구원	0 (0.00)	2 (2.13)	1 (1.18)	9 (7.63)	12 (3.90)
비전임	0 (0.00)	0 (0.00)	3 (3.53)	1 (0.85)	4 (1.30)
총계	11 (100%)	94 (100%)	85 (100%)	118 (100%)	308 (100%)

제 1 저자의 현재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건축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전공자가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건축 전공의 연구자가 전체 308편의 논문 중 280편을 차지하여 약 91%에 달한다. 제 1 저자는 건축이지만 다른 전공분야 소속의 연구자가 참여한 공동 연구의 수는 280편 중 13편(4.64%)이 발견된다. 다음으로는 실내건축학 소속이 8편(약 2.6%), 보건학소속의 연구자가 4편(약 1.3%)을 게재하였다(표 10).

[표 10] 제 1 저자 전공

소속전공	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합계
건축	10 (90.91)	90 (95.74)	78 (91.76)	102 (86.44)	280 (90.91)
실내	0 (0.00)	0 (0.00)	4 (4.71)	4 (3.39)	8 (2.60)
보건	0 (0.00)	1 (1.06)	0 (0.00)	3 (2.54)	4 (1.30)
산업경영	0 (0.00)	2 (2.13)	1 (1.18)	0 (0.00)	3 (0.97)
건축설비	0 (0.00)	1 (1.06)	1 (1.18)	1 (0.85)	3 (0.97)
복지	0 (0.00)	0 (0.00)	1 (1.18)	2 (1.69)	3 (0.97)
주거학	0 (0.00)	0 (0.00)	0 (0.00)	2 (1.69)	2 (0.65)
도시	0 (0.00)	0 (0.00)	0 (0.00)	2 (1.69)	2 (0.65)
건설관리	0 (0.00)	0 (0.00)	0 (0.00)	1 (0.85)	1 (0.32)
소방	0 (0.00)	0 (0.00)	0 (0.00)	1 (0.85)	1 (0.32)
간호학	1 (9.09)	0 (0.00)	0 (0.00)	0 (0.00)	1 (0.32)
총계	11 (100%)	94 (100%)	85 (100%)	118 (100%)	308 (100%)

연구의 진행은 2인 공동 연구로 진행한 것이 153편(약 5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인 이상의 연구(79편; 약 26%)와 단독연구(76편; 약 24%)가 뒤따른다. 그러나 2인 공동연구의 감소세가 관찰되는 반면에 3인 이상 공동연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표 11).

[표 11] 저자의 수

저자 수	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합계
2인	5 (45.45)	57 (60.64)	40 (47.06)	51 (43.22)	153 (49.68)
3인이상	2 (18.18)	19 (20.21)	20 (23.53)	38 (32.20)	79 (25.65)
단독	4 (36.36)	18 (19.15)	25 (29.41)	29 (24.58)	76 (24.68)
총계	11 (100%)	94 (100%)	85 (100%)	118 (100%)	308 (100%)

3.6 연구비 수혜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는 94편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는 연구비의 성격에 의해 교내연구비와 교외연구비로 구분할 수 있다.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진행된 연구는 50편으로 전체의 약 16%, 국토해양부나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지원하는 교외연구비에 의해 진행된 연구는 44편으로 전체의 약 14%를 차지한다. 자비연구의 비율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나 최근 5년간의 두드러진 감소세가 관찰된다. 반면에 교내 연구비와 교외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최근 5년간 연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외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된 연구의 수는 2001-2005년 기간에는 전체 논문의 3편(3.53%)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6-2010년 기간에는 전체의 30편(25.43%)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표 12).

[표 12] 연구비 수혜 논문

연구비	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합계
자비연구	7 (63.64)	70 (74.47)	71 (83.53)	66 (55.93)	214 (69.48)
교내연구비	1 (9.09)	16 (17.02)	11 (12.94)	22 (18.64)	50 (16.23)
교외연구비	3 (27.27)	8 (8.51)	3 (3.53)	30 (25.43)	44 (14.29)
총계	11 (100%)	94 (100%)	85 (100%)	118 (100%)	308 (100%)

3.7 국제연구

국제연구는 44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 국가로는 일본이 18편으로 전체 국제연구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미국(10편; 23%), 독일(9편; 20%), 복수국가(6편; 14%), 그리고 중국(1편; 2%)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보면 일본을 대상으로 하거나 복수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크게 증가한데 비해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감소하였다(표 13).

[표 13] 국제연구의 수

국제연구	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합계
일본	0 (0.00)	4 (33.33)	2 (20.00)	12 (57.14)	18 (40.91)
미국	0 (0.00)	5 (41.67)	3 (30.00)	2 (9.52)	10 (22.73)
독일	0 (0.00)	2 (16.67)	4 (40.00)	3 (14.29)	9 (20.45)
복수국가	1 (100)	1 (8.33)	0 (0.00)	4 (19.05)	6 (13.64)
중국	0 (0.00)	0 (0.00)	1 (10.00)	0 (0.00)	1 (2.27)
총계	1 (100%)	12 (100%)	10 (100%)	21 (100%)	44 (100%)

4. 논의 및 결론

의료복지시설 연구에 집중하는 전문학회지로 자리매김한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성과 측면에서의 특성은 연구의 경향, 방법, 성격, 대상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먼저 연구의 경향에 나타난 특징은 의료복지시설의 공간구성이나 면적배분과 같은 기능적 측면에 대한 집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과학적 연구 결과를 디자인 결정을 위한 설득요소로 활용하는 증거기반의 디자인과 연관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심의 증폭이 확인된다. 또한 건축유형으로서의 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의료정책이나 개호보험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정책적 측면을 고려하는 연구의 경향이 발견되었다. 건축 유형학적 관점으로 볼 때 의료복지시설이 내포하고 있는 기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긴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미학적 속성에 대한 연구관심은 미미하다. 그러나 연구경향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기술적 및 관리/운영적 효율성에 대한 실무적 관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의 5%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관리/운영에 대한 연구는 약 4%에 지나지 않으며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개의 전문학술지의 저자가 대학교수나 대학원생이라는 연구자의 특성과 연관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특히 의료시설의 경우 기술 및 관리/운영의 연구결과는 의료시설운영자나 관리/운영 실무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기능요소에만 집중하는 연구경향의 편중은 건축계획 및 설계자의 관점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복지시설 연구에 대한 학회지의 기여를 제한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 학회지의 특성을 보면 질적 연구로의 편향이 두드러진다. 총 308개의 논문 중 질적 연구의 비율은 약 88%에 이른다. 특히 문헌조사와 사례연구의 지속적 증가는 참조할 수 있는 선행 연구문헌 및 사례의 증가와 의료복지 연구의 관심이 시설측면의 세부적 사항에서 정책 및 제도의 거시적 관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의 9% 정도이며 (유사)실험/시뮬레이션 연구는 약 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질적, 양적 연구방법의 선택은 연구의 주제, 탐색하는 지식의 속성이나 연구자의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일반성을 추구하고 객관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양적 연구 결과의 효용과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연구결과의 효용을 고려하면 학회지의 연구 논문이 한 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되는 것은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균형 잡힌 전문지식의 축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론적/규범적 성격을 갖는 연구가 실제적/처방적 성격을 갖는 연구와 유사한 비율로 발표되어 있다(각각 약 44%, 56%). 학회지 논문의 약 88%가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되어진 것을 고려하면 실제적/처방적 연구의 제안은 경험적 사실에 준거해 이루어진 객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론적 당위성에 의해 이루어진 규범적 제안의 속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복지시설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구의 관심이 치료를 위한 시설로서의 의료시설에 대한 효율성 개선 요구에서 다양한 계층의 전반적 복지 수준의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에 의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관련 시설에 대한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연구실행의 주체에 대한 측면에서 나타난 특성을 제 1 저자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자의 신분, 전공, 저자의 수로 대별하여 분석하면, 대학전임교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의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여러 학회지에서도 관찰되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업적 평가나 승진 기준 등의 강화에 의해 대학교원이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현실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제 1 저자를 기준으로 한 전공의 분석은 건축 전공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학회지의 다학제적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저자의 수는 최근 10년간 단독연구와 2인 공동연구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3인 이상의 공동연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비 연구의 감소 및 교내연구비와 교외연구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증대되는 연구과제 규모의 대형화와 복잡성의 증가 등의 이유와 연동하여 참여 저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연구의 경향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과 제도적 및 문화적 속성이 유사한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의 노인복지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는 연구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

본 논문은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게재논문의 전수 조사를 통해 연구동향을 시계열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복지시설 연구의 구조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석이 연구의 양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게재 논문이 건축연구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질적인 수준의 변화를 평가하는 효용을 가질 수는 없다. 또한 다른 전문학술지에 나타나는 '의료복지' 관련 연구논문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의 특성을 상대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연구 역시 필요하다. 국제적 연구와 관련하여 본다면, 외국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성격의 전문학술지¹⁾에 나타나는 연구동향과의 비교 연

구가 이루어져 국제적인 연구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비교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광동엽: 한국주거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 본 최근 주거사 연구 동향, 건축역사학회, 제24권, 제1호, 2005.
2. 김덕수: 의료시설 디자인의 복잡성과 필요전문지식의 인식,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 11권 제1호, 2005.
3. 김성: 행정정보체계 관련 연구동향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4. 김태영: 한국 도시행정학의 교육·연구 실태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2집, 제3호, 2009.
5. 류숙희, 이상호: 국내의 논문 분석을 통한 노인시설 색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2호, 2008.
6. 류현주, 양세화: 노인주거 연구 경향 분석: 1990년 이후 국내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1권, 제5호, 2010.
7. 류호섭, 최병관: 한국건축계획 연구의 동향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2권, 제5호, 2005.
8. 박민철: 한국건축저널의 역사와 비평의 경향, 간향: 건축과 저널리즘, 1989-1990, 1990.
9. 박진규: 치유환경 연구문헌 고찰 및 근거중심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17권, 제1호, 2011.
10. 배현미: 한국의 학회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경관분야의 연구경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2권, 제3호, 2007.
11. 변혜령 외 3인: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국내연구 분석: 1990년 이후 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7권, 제2호, 2008.
12. 성현관 외 2인: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4권, 제5호, 2009.
13. 오혜경: 한국실내디자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경향,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논문집, 제22호, 2000.
14. 유영민: "한국의 병원건축계획사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16권, 제4호, 2010.
15. 윤의영: 한국 도시행정학의 연구경향: 도시행정학보 연구논문(1988-2008)을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1집, 제3호, 2008.
16. 이민아: 디자인 과정 단계별 실내디자인 연구 경향,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39호, 2003.
17. 이연숙 외 4인: 국내 노인주거환경계획 분야 연구의 흐름 분석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제2호, 2007.
18. 이용민, 권오정: 국내 유니버설 디자인 선행 연구 동향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8권, 제6호, 2009.
19. 이정화 외 4인: 노인을 위한 환경계획디자인 분야 국내 연구의 흐름 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8권 제1호, 2006.
20. 정무웅, 정기남: 노인주거 관련 연구경향과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제11호, 1996.
21. 정아영, 오영근: 공간연구에 있어서 감상적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의 키워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 제5호, 2008.

1) 미국의 경우에는 Healthcare Environments Research & Design Journal이 2007년부터 발간되고 있다.

22. 정유나: 한국 실내디자인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나타난 제특성에 관한 연구: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수여된 석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호, 2000.
23. 조제순 외 3인: 미국의 노인주거 관련 연구경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제10호, 1995.
24. 최상현: 국내 건축 및 실내디자인 분야의 환경심리행태 연구경향 분석: 건축 및 실내디자인학회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 제5호, 2008.

접수 : 2011년 3월 28일
1차 심사 완료 : 2011년 4월 15일
최종 수정본 접수 : 2011년 5월 9일
3인 익명 심사 필